

Good things*

FREE

Market-m* Life style magazine

2014 Autumn



9 772286 434006

ISSN 2286-4343

Good Story

- 06 Travel 통영 여행기
- 20 Brand 사랑받는 전통을 만드는 낫그릇 브랜드, 낫이(NOSHI)



Good Info

- 26 Play 서촌에서 걷고 이야기 하다
- 32 Music 가을 향기 가득한 노래
- 33 Taste 따뜻하게 즐기는 티타임
- 35 Movie 가을 느낌, 감성 충전
- 36 Culture 책 읽기 좋은 계절

Good Place

- 38 Place 홍대, 앤트러사이트 커피로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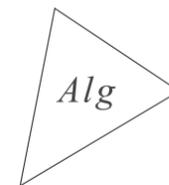


발행 엠퍼블리싱 ISSN 2288-4343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3길 5 (통인동 118-10) 대표전화 02 325 4769 팩스 02 335 4769
발행인 이현우 기획 이현아 편집·디자인 김희진 사진 김소영 번역 복진하 인쇄 인쇄메이드 홈페이지 www.market-m.co.kr
광고 및 배포처 신청 help@market-m.co.kr

Market m*이 만든 출판사인 <엠퍼블리싱>의 Good things*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무료 배포되는 기간지로 전국 각 도시 중심거리의 카페, 샵, 레스토랑 등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arket_life blog www.marketm-life.com

Good things* by TMC INTERNATIONAL INC. Copyright © 2014 All rights reserved.
굿핑즈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주)티엠씨 인터넷서널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lg_Analog life는, 마켓엠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의류 브랜드입니다.
100% 오가닉 코튼을 이용하여 호주에서 생산한 아기옷부터 아동, 성인남녀 의류까지 심플하고 편안한 느낌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여유로운 호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Alg 제품을 통해 경험해보세요.

Refresh your mind!

유난히 무덥게 느껴지던 계절이 지나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낙엽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해 가을이 깊어지면 어딘가 잠들어 있던 여행에 대한 그리움이 깨어난다.

청명한 하늘과 불어오는 바람이 어우러져 걷기 좋은 이 계절, 아름다운 바다와 예술적 감성을 휘감은 통영의 가을을 걸었다.



AM 06:30

서늘해진 아침 공기를 맞으며 여행길을 떠났다.
허기진 배를 휴게소의 간식들로 채우며 청백의 풍경을 즐기며 오랜 여정의 지루함을 달랬다.



Info.1



The way to the Tongyeong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 북통영 IC, 통영 IC
버스: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1일 16회, 남부터미널에서 1일 19회 운행
항공: 대한항공이 서울 김포와 진주-사천 공항을 1일 2회 왕복 운항

AM 11:30

5시간 만에 도착한 통영은 옛스러운 맛이 느껴지며 정겹고 푸근했다.
그 낮설지만 정겨운 길에서 지도를 보며, 여행 일정을 정해보았다.



여행 일정

통영 도착 → 점심식사 → 케이블카 & 미륵산 → 해저터널 → 옥지도 → 서호시장 & 중앙시장 → 달아공원





PM 12:00

다채로운 먹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행의 시작부터 음식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통통하고 상상한 굴, 달달한 맛이 일품인 꿀빵, 배에서 먹어야 맛있는 총무김밥. 시장에서 바로 먹는 싱싱하고 다양한 종류의 회 등,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먹거리로 가득했다.

Recommend! : 통영을 대표하는 먹거리 3인방!



총무김밥

김을 만 밥에 젓갈과 함께 무친 무와 쫄깃하고 새콤한 오징어무침을 곁들여 먹는 총무김밥. 바다가 가까이 있는 통영의 음식 문화로 배를 타고 먹으면 한층 더 맛있게 느껴진다.



꿀빵

통영을 대표하는 간식거리로 양중맛은 크기에 팔로 속을 채워 밀가루를 입혀 튀긴 후 물엿을 묻혀 만든 빵이다. 곁에는 다양한 견과류들을 뿌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멍게비빔밥

잘게 자른 싱싱한 멍게와 함께 김가루, 통깨를 듬뿍 넣고 참기름을 뿌린 비빔밥으로 바다 향이 향긋하게 풍겨 입맛을 돋운다.



PM 01:00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탔다.

케이블카 밑으로 보이는 멋지게 펼쳐진 풍경들을 느끼다보니 어느새 종착지에 도착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15분 정도 올라가면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미륵산 정상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통영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크고 작은 150여 개의 섬들이 떠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영 앞바다로 그 아름다운 풍경에 눈을 땔 수 없었다.

Info.2

Let's Go, Cable car!

주소 경남 통영시 발개로 205

운영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 둘째, 넷째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어린이 5천원 / 중학생 이상 9천원

문의 055-649-3804



PM 02:00

통영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은 후 찾아간 곳은 해저터널이다.

바다 밑을 가로지르는 이 터널은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로 1932년에 만들어졌으며,

자동차까지 통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도보로만 지날 수 있고 등록문화재 제201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비록 공사의 시행이 일제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투입된 인력과 자재가 우리 민족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상의 터널과 다를 바 없는 터널이지만 걷다 보면 수심으로 인한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신기하기도 하고 짧게나마 걷기 좋은 곳이었다.

Info.3

Undersea Tunnel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길 1

운영시간 24시간

이용요금 무료

문의 055-650-4683



PM 03:00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왔으니 섬 한군데 정도는 들려야 할 것 같은 마음에 통영항으로 향했다.

배시간이 가장 알맞은 옥지도로 가는 배를 선택했다.

통영항에서 옥지도로 가는 뱃길부터가 장관을 이루었으며,

해안 절벽과 초원, 백사장이 어우러진 대단한 절경을 보니 피로함이 싹 가시는 것 같았다.

Info.4

Travel to island

통영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있어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해안 절벽이 장관을 이룬 옥지도,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마을 매물도 뿐만 아니라 연화도, 한산도, 비진도, 장사도 등 각각 다른 수려한 풍경으로 이름난 섬들이 많이 있으니 꼭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PM 06:00

여행 중 꼭 가야할 곳은 현지인들의 활기와 온기가 느껴지는 시장이 아닐까 싶다.
 북적이는 그곳에서 그들의 표정과 냄새, 공기를 통해 정겨움을 느낄 수 있었고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활어시장, 할머니의 정이 느껴지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통영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Info.5

Let's Go, Market!

중앙시장
 주소 경남 통영시 중앙시장길 14-16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9시
 문의 055-649-5225

서호시장
 주소 경남 통영시 새터길 42-7
 운영시간 오전 5시 - 오후 6시
 문의 055-645-3024



달아공원에서 바라본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저녁풍경

PM 07:00

미라도 남쪽 끝에 있는 달아공원에서 여행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작은 공원이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해넘이 풍경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과 붉은 빛의 하늘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놓칠 수 없는 황홀한 풍경을 눈에 담기 바빴다.

가을이 주는 낭만과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적 풍경이 잊혀지지 않을 여행의 추억으로 자리잡았다.

Info.6

통영 여행정보 사이트

통영관광포털 tour.tongyeong.go.kr

통영수첩 www.tymtour.com

통영시티투어 www.tycitu.com

늦그릇가지런히



사랑받는 전통을 만드는 늦그릇 브랜드 늦이(NOSHI)의 인터뷰입니다.

This is an interview with NOSHI, brassware manufacturing brand, which makes loved traditions.



'늦이(NOSHI)'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늦이(NOSHI)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징장' 이용구 선생님과 막내아들인 이경동 전수자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전통과 기술, 장인정신이 담겨있는 늦그릇 브랜드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전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늦이(NOSHI)는 현재에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Please introduce NOSHI briefly.

NOSHI is a brassware brand, with tradition, technique and craftsmanship, managed and owned by 'Jingjang' Yong Gu Lee,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4, and his youngest son, Gyeong Dong Lee. NOSHI is still working on making a loved tradition by people, because the tradition that is not needed will disappear.

어떤 계기로 늦그릇에 관심을 가지고 '늦이(NOSHI)'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늦그릇의 진정한 가

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그릇이 가진 장점과 다양한 쓰임새를 두루 알리고 생활유기 디자인부터 식문화 흐름까지, 바로 늦이를 통해 새로운 다이닝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늦그릇의 올바른 사용법, 여러가지 활용 아이디어와 함께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활유기를 제안하며 보다 많은 사람이 늦그릇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How did you get interested in Brassware and launch this brand, NOSHI?

I made a resolution that I had to inform the value of brassware, which had been out of attention due to the acknowledgement of old fashioned product on brass products. I wanted to inform advantages and various usage of brassware and to suggest the new dining culture & life style with real life design and dietary culture flow through NOSHI. I launched this brand with a hope that people get a bit closer and familiar to brassware, and have been informing the proper usage of brassware and various ideas of usage.



제품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며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놋이(NOSHI)는 경상남도 거창에 위치한 놋이 공방에서 만들어집니다. 놋그릇을 만드는 방법에는 주물기법과 방짜열단조기법이 있는데 놋이는 정확하게 합금된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이 가능한 방짜열단조기법으로 만듭니다.

우선 가장 좋은 주석과 가장 좋은 구리를 선별하여 22:78의 황금 비율로 조합하여 섭씨 1,200도의 용광로에서 합금합니다. 그리고 합금된 구리와 주석을 두드려(메질) 얇게 펴는 네빔질(넙힘질)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리와 주석은 더 균일하고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두드려진 얇은 판을 다시 불에 달구고 두드려가며 그릇의 기초 형태를 잡아주는 닥침질을 합니다. 닥침질 후에는 더 세밀한 구체 성형을 하는 제질을 하게 됩니다. 제질 후에는 놋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담금질을 하는데 놋이에서는 천일염 간수를 사용하여 놋쇠의 성질을 더 부드럽게 합니다. 이후 빛나는 놋그릇의 광택을 위한 가질의 작업을 거치면 놋이가 완성되게 됩니다.

Please tell me about where and how to manufacture NOSHI product.
NOSHI is made in a workshop in Geochang, Gyeongsangnam-do. There

are two way of making brassware: Casting Method and Casting+Forging Method, and NOSHI is using Casting+Forging Method, which requires very accurate measurement of materials.

First, selected the best quality tin and copper will be mixed at a rate of 22:78 and alloyed in a furnace (1,200°C). Second, we hammer the alloyed tin and copper thin by performing widening work (Neppim-jil); and this widening work will create more rigid and harder material. After the widening work, we put it in the furnace again and strike the red-hot alloy of tin and copper with a hammer, and form a basic shape (this work is called "Dak Chim Jil"). After Dak Chim Jil, we start figuration by Je Jil in order to get more detailed shape. After Je Jil, we perform Dam Geum Jil, and during this work we use sun-dried salt (Gan Su) in order to make softer property of brass. For the last step to make brassware, we perform Ga Jil, which is for glossy surface of the final product.

방짜열단조기법의 장점

- ▶ 정밀하고 세밀한 디자인
- ▶ 단단한 내구성
- ▶ 두드림으로 만들어진 은은한 황금빛
- ▶ 사용자에 맞춰진 무게와 사이즈

Advantages of Casting+Forging Method

- ▶ Precise and detailed design
- ▶ High durability
- ▶ Subdued golden color from striking
- ▶ Costumed weight and size





다른 식기에 비해 놋그릇이 주는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놋그릇은 우리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주기 때문에 건강한 그릇이라고 불립니다. 우선 놋그릇에는 보온·보냉 기능이 있습니다. 따뜻한 것이 담기면 따뜻함을 지켜주고, 시원한 것이 담기면 시원함을 지켜줍니다. 음식의 온기와 냉기를 지켜 만든 사람의 정성이 온전히 전해지게 됩니다.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음식이 담기면 놋그릇의 균대균대가 그을린 듯 검푸르게 색이 변하여 위험을 알려주며 또한, 살균기능이 있기 때문에 놋그릇에 물을 받아 채소를 담가 두면 더욱 상쾌합니다. 그리고 구리와 주석을 섞어 수천 번 두드려 만들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해 이가 나가거나 깨지는 일이 거의 없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이야기를 담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릇입니다.

What is the advantage of brassware compares to other dining dishes?

The brassware distinguishes itself beneficial food to human's body from unwholesome food, so that normally this is called "Healthy

Plate" The brassware has a temperature maintaining function, so when you place warm food in a brass bowl, it keeps the heat, and cold food will be retained with its cold temperature as well. Users probably will be able to feel the maker's warm heart by seeing its temperature maintenance.

Also, the color of some parts of brassware is changed, when the containing food has remaining pesticides or chemicals. The brassware has a sterilization function, so fruits and vegetables in the brass bowl will be more sanitized automatically.

Moreover, the brassware, which is manufactured with copper and tin by striking thousand times, is so strong and solid that this is virtually indestructible. You can hand used brassware that contains your stories and life down to your children.



놋이 나눔 그릇



놋이 두드림 담기

놋그릇은 관리를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제품의 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예전부터 놋그릇은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세제와 주방도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그릇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닦을수록 윤기가 나고 쓸 수록 주인의 손맛을 알아가는 그릇이기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광택을 잃지만 자주 사용하고 닦아주면 점점 빛이 나게 됩니다.

I guess brassware needs a special care. Can you tell us about the management method of brassware?

People normally consider that brassware is not easy to care;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with normal dishes due to a great development of cleansers and dishwashing tools.

It is the same as normal dishwashing. But, one difference is that the brassware loses its sheen if the owners do not use and stay in the cabinet for a months, and as users touch and use the brassware gain its sheen again, because the brassware is the dishes that is kept under users' hand.



놋그릇의 올바른 관리 방법

1. 오랜 시간 물에 담가 두면 색이 변할 수 있으니 되도록 바로 세척하면 좋습니다.
2. 세척할 때에는 철수세미나 부드러운 스펀지보다는 '초록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일반 그릇과 동일하게 세척합니다. (일정 강도 이상의 화학 약품이 닿으면 색이 변할 수 있으니 유기성 세제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3. 한 방향으로 문질러 세척하면 예쁜 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세척 후 물기를 빼고 마른 행주로 닦아 완전히 말린 다음 그늘지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보관합니다.
5.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음식에 반응하여 검게 변하였을 때는 따뜻한 물에 담고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한 방향으로 문질러 세척하면 말끔히 사라집니다.
6. 검게 변한 그릇에 더욱 윤택한 광을 내고 싶다면 일반 세제에 토마토 주스를 약간 섞어 놋그릇을 닦아주면 얼룩을 보다 쉽게 지울 수 있고 색도 더욱 예뻐집니다.

1. It is better to clean right after because the color can be changed if it remains in the water long time.
2. For dishwashing, the use of the green washing cloth (typical Korean product) is good rather than steel wool or soft sponge (If the chemical concentration of cleanser is too high, the color might be changed. The organic cleanser is preferred).
3. Rub the brassware in one direction. You may be able to make beautiful and fine grain.
4. After dishwashing, completely dry out the dishes with towel, and keep the dishes in a shady and ventilative place.
5. When your brassware gets a stain due to chemicals on containing food, put the dishes into warm temperature water and softly rub in one direction.
6. If you want to have more glossy surface, mix tomato juice with regular dish cleanser. You will be able to clean the stain easier and even the color will become prettier.



놋이 가지런히 잔



놋이 다듬 집시

다양한 용도의 놋이 제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반응이 좋은가요?

놋이의 베스트셀러인 가지런히 잔은 사용하기에 따라 거의 모든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차를 담는 찻잔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팔죽을 담아내는 볼이 되기도 하고 사용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유기놋그릇 뚜껑은 우아한 꽃잎모양으로 디자인되었는데 뒤집어서 식사 시 앞 접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mong various NOSHI products, what is the most popular product?

The best seller is a cup and can be used in various ways. It can be used as a rice bowl, a cup for tea, a bowl for red-bean soup(Patjuk) and so on. Brass Rice Bowl Cap has elegant flower print, and you can also use it as a side dish when you flip the cap.

종로구 통인동에 카페 및 갤러리를 2011년, 오픈하였습니다. 닛이 카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추천메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You have opened a cafe with gallery in 2011 at Tongindong in Sejong Village. Please suggest a unique menu that visitors can taste only in your cafe.



단팥죽



옆집홍시 뒷집단팥



생강라떼



www.noshi.com

다양한 닛이와 Market m*은 그동안 다양한 부분에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해 왔습니다.
 Market m*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닛이와 Market m*은 많은 부분이 닮았습니다. 그 중 가장 닮은 점은 생활에서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됨 없이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한 형태와 과시적인 장식이 아닌 담백한 선으로 이루어진 모습,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닛이와 가장 닮았기에 닛이와 Market m*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OSHI and Market m& has been sharing various culture and experience so far. What was the image of Market m* you have been inspired?

Market m* and NOSHI have lots of similar features. The most similar feature is that we both are focusing on practicality in real life and beautiful design for users. There is no exaggeration on the design of products (we both have simple lines and curves without additional decoration), and we are admiring simple and comfortable life style together. Therefore, I think Market m* and NOSHI is creating a great synergy effect together.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순 그릇이 아닌, 다이닝 문화를 이끄는 닛이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대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생활 문화로서 닛그릇을 자리 잡게 하고, 더 나아가 그릇에서 액세서리, 램프 쉐이드에 이르기까지 의식주를 아우르는 '문화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문화인 닛그릇으로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If you have a goal or plan for the future, please tell us about that.

I want to design and manufacture a leading company NOSHI that actually lead dining culture. I hope the brassware culture penetrates into the life these days, so that people can learn how they feel when they receive a cup of tea with a sense of gratitude. Furthermore, from dishes and accessories to lamp shade, I want to make a new leap to cultural business cover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create a leading culture brand that represent our country.

인터뷰에 응해주신 닛이의 김순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Thanks to the representative of NOSHI, Soon-young KIM, for this interview.

Walk &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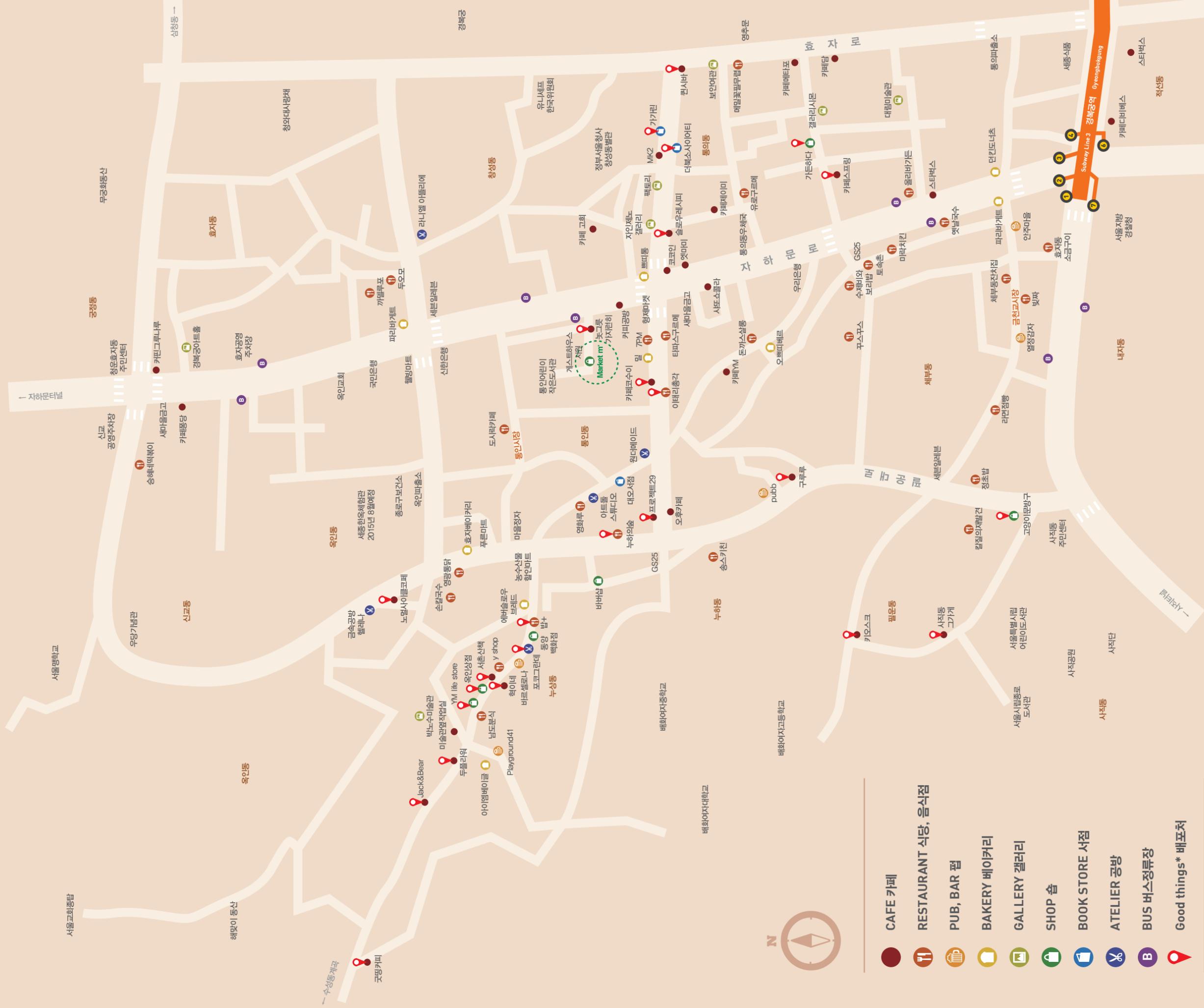
서촌에서 걷고 이야기 하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 별칭으로 청운효자동, 사직동 일대를 뜻한다. 이 곳은 옛 풍경의 운치가 있으면서도 어릴 적 살던 동네 처럼 친근한 마을이다. 3호선 경복궁역 출구부터 시작되는 서촌은 주택가 사이사이에 자리잡은 갤러리, 카페, 밥집이 조화를 이룬다.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시장 골목, 한적한 한옥 주택이 정겨운 마을,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깃든 서촌을 천천히 거닐며 이야기해보자.

Map around Seochon*

한눈에 보는 서촌 문화 지도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 별칭으로 발칭으로 인왕산 동쪽과 경복궁 서쪽 사이인 청운효자동, 사직동 일대를 뜻하며, 공식 명칭으로는 세종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 CAFE 카페
- 🍴 RESTAURANT 식당, 음식점
- 🍺 PUB, BAR 펍
- 🍞 BAKERY 베이커리
- 🖼️ GALLERY 갤러리
- 🛍️ SHOP 숍
- 📖 BOOK STORE 서점
- ✂️ ATELIER 공방
- B BUS 버스정류장
- 📍 Good things* 배포처



인왕산이 보이는 수성동 계곡 입구

서촌의 대표 볼거리



경복궁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

서촌의 시작점인 경복궁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한적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다.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던 궁답게 스케일부터가 남달라 한 바퀴 제대로 둘러보려면 넉넉히 2-3시간은 잡아야 한다. 1년에 2번 정도 야간 특별 개방을 하기도 하니 낮과 다른 고궁의 정취를 느껴볼 수도 있다. 경복궁 관람이 끝나면 나가는 길에 궁 옆에 세워진 국립민속박물관에 들려보는 것도 좋다.

☎ 02 3700 3900 🕒 09:00 - 18:00 / 화요일 휴관, 동절기 17시까지



대림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1

통의동 주택가에 위치한 대림미술관은 한국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소개하며 그 경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대중들과 쉽게 소통하기 위해 전시 때마다 콘서트나 여러 행사를 준비하여 어렵지 않게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향하도록 기획하여 최근에는 매 전시기간 중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02 720 0667 🕒 10:00 - 18:00 / 월요일 휴관 🌐 www.daelimmuseum.org



6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촌의 오랜 이야기를 간직한 대오서점



통인시장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0-3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오래된 통인시장은 2011년 부터 예술 전공 학생들과 함께 시장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점포마다 특징에 맞게 꾸며졌다. 또한 시장 안에 서만 사용 가능한 업전으로 먹고 싶은 반찬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카페 등 독특한 즐길거리가 있다. 오래된 시장인 만큼 주전부리도 많다. 기름떡볶이를 비롯해 감찰맛 나는 떡갈비 등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하다.

☎ 02 722 0911 🕒 매일 둘째주 일요일 정기휴무 / 도시락카페 11:00 - 17:00



보안여관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2-1

통의동 보안여관은 80여년의 세월 동안 '여관'이라는 이름 그대로 나그네를 위한 공간이었기에 언제나 머물고 떠남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이기도 했다. 서정주 시인이 하숙하면서 김동리, 오정환, 김달진 시인 등을 탄생시킨 곳이다. 문화예술의 역사를 간직한 이 공간은 2007년부터 새로운 투숙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 02 720 8409 🕒 11:00 - 19:00 🌐 cafe.naver.com/boaninn



한 잔의 여유



커피공방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하는 핸드 드립 커피 전문점으로 커피 이외에도 다양한 음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며 테이크 아웃은 1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층처럼 커피 마니아를 위한 공방같은 곳으로 커피 관련 용품들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A. 종로구 통인동 137-7 T. 02 725 9808 * 09:00 - 22:00 / 명절, 노동절 휴무



노멀사이클코페

질 좋은 생두를 직접 선별하여 수동 로스터를 통해 매일 소규모 로스팅을 진행하고 각각의 산지별 커피가 지닌 매력적인 향미와 개성을 담은 풍미를 찾아내고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곳만의 핸드메이드 커피백은 신선한 맛을 위해 소량으로 주문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멀리서 찾아오기 힘들 때 이용하기 좋다.

A. 종로구 옥인동 47-32 3F T. @normalcyclecofe(twitter) * 운영시간은 트위터 공지



맛이 있는 서촌



밥 플러스

정갈하고 건강한 밥상으로 소문난 서촌의 맛집으로 입구에 적힌 '미원 안 됨, 다시다 안됨, 나 윤경이 엄마다' 라는 메시지처럼 엄마의 마음이 담긴 맛을 느낄 수 있다. 건강한 맛의 곤드레밥, 깔끔한 카레덮밥, 카레우동 등을 맛볼 수 있으며 정갈하게 나오는 반찬들도 일품이다.

A. 종로구 누하동 77-15 T. 02 725 1253 * 11:30 - 22:30 / 화요일 휴무



남도분식

광주 출신의 주인장이 어릴 적 즐겨 먹던 간식거리를 주 메뉴로 내놓은 남도분식은 즉석떡볶이, 상추튀김 등 다양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바삭한 오징어 튀김에 소스와 양파를 올려 상추에 싸 먹는 상추튀김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이며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문을 닫는다.

A. 종로구 누상동 52-1 T. 02 723 7775 * 12:00 - 21:00 / 월요일 휴무



슬로우레시피

카페 이름처럼 천천히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이곳은 메뉴도 이름에 걸맞게 더덕밀크, 마사과스무디 등과 같은 건강음료가 다양한 곳이다. 이곳저곳 눈길이 닿는 곳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하며 소소하게 전시도 열려 눈과 입이 즐거운 공간이다.

A. 종로구 통의동 91-43 T. 02 733 3164 * 11:30 - 22:30



카페 스프링

60년 된 집을 개조한 새하얀 건물이 눈에 띄는 카페로 따뜻한 분위기의 원목 가구, 타자기, 턴테이블 등 빈티지 소품이 비치되어 아기자기하며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홈메이드 음료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고 디자인 문구, 패브릭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A. 종로구 통의동 35-11 T. 02 725 9554 * 11:00 - 22:00



토속촌

서울 3대 삼계탕으로 손꼽히는 토속촌, 걸보기에는 어느 삼계탕과 다름없지만 특수 재료 3가지를 가미하여 진한 국물 맛과 오묘한 향이 배어 있으며 닭의 풀깃함은 소문대로 특별하다. 소금이 짙어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간이 잘 맞고 견과류가 듬뿍 든 찹쌀밥은 고소한 맛으로 먹기 좋다.

A. 종로구 체부동 85-1 T. 02 737 7444 * 10:00 - 22:00



이태리 총각

작고 알차게 꾸며진 공간에 친절한 세프, 직원분들로 활기찬 분위기의 이태리 식당이다. 오픈 키친으로 정겹고 믿음직스러우며 화덕에 구운 피자과 깔조네가 일품, 기본에 충실하며 독특하고 창의적인 메뉴들로 항상 단골손님들로 가득하다. 오후 3시 부터 5시는 재료준비 시간이다.

A. 종로구 통인동 137-6 T. 02 730 8893 * 11:30 - 24:00



문화를 즐기다



가가린

통의동과 경복궁 돌담길로 이어지는 영추문길의 카페와 갤러리,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든 밝고 깨끗한 분위기의 한책방이다. 디자인, 사진, 건축,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함께 CD, 포스터, 에코백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내부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온그라운드 스튜디오'라는 전시공간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

A. 종로구 창성동 122-12 T. 02 736 9005 * 13:30 - 19:30



더북소사이어티

디자이너와 함께 소규모 출판물을 기획, 제작하는 '미디어버스'라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서점으로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관련 서적들이 많이 있다. 상수동에 위치해 있다가 2013년, 통의동으로 이전을 했으며,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A. 종로구 통의동 13 2F T. 070 8621 5676 * 13:00 - 20:00(주말19:00) / 월요일 휴무



개성있는 서촌 샵 구경



옥인상점

30년간 자리를 지키던 오락실이 문을 닫은 후, 서촌의 토박이 설계우씨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편집숍이자 작업실로 문을 열었다. 그가 기록한 책 [서촌방향], 매거진 [서촌라이프] 등을 비롯해 다양한 소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서촌을 사랑하는 그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다.

A. 종로구 옥인동 156-7 T. 2 737 4788 * 11:30 - 21:30



바버샵

서촌의 샵들의 특징은 예상치 못한 골목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바버샵의 모던한 건물도 마찬가지로 누하동의 주택가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바버샵은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남성들의 아이템을 파는 편집숍으로 의류, 가방, 슈즈,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로 눈길을 끈다.

A. 종로구 누하동 100 T. 070 4155 9774 * 11:00 - 20:00 / 일요일, 공휴일 휴무



갤러리 팩토리

예술의 장르적 구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워크샵과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 곳이다. 현대미술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기획 및 공공미술기획 진행과 건축물, 미술품 장식기획을 진행한다.

A. 종로구 창성동 127-3 T. 02 733 4883 * 11:00 - 18:00 / 월요일 휴무



옥인 상영관

가정집을 개조하여 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비영리 공간이며 기획과 상영작에 따라 소정의 입장료나 기부금 혹은 무료로 진행이 된다. 주로 독립단편영화를 상영하며 학창시절 5명의 친구들이 모여 만들게 된 이곳은 구성원들의 특성상 평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며 주말인 토, 일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A. 종로구 옥인동 47-17 T. 010 8867 1425 * 토 / 일 상영



가든하다

'사람은 왜 꽃을 심고, 가드닝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그 활동 영역을 넓혀 가는 회사로 가드닝 제품 디자인, 콘텐츠 제작을 하며 모바일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 스프링 맞은편에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다. 다양한 유니크한 식물들과 더불어 가드닝 제품들이 보기좋게 진열되어 구경하기 좋은 공간이다.

A. 종로구 통의동 25-13 T. 02 736 0926 * 11:00 - 20:00 / 첫째주 금요일 휴무



고양이 문방구

'내가 만드는 문구'를 모토로 하여 원하는 일러스트를 에코백에 새기거나 표지, 내지 디자인 등을 선택해 취향대로 맞춤 노트를 제작할 수 있으며 250여 가지 스탬프를 엮서, 카드, 달력 등에 찍어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D.I.Y 전문점이다.

A. 종로구 필운동 136-1 T. 02 3446 4603 * 화-금 12:00 - 19:00 / 토 11:30 - 19:00



달콤한 서촌



키오스크

우유와 달걀물에 재어놓은 바게트를 구워 부드럽고 촉촉한 프렌치 토스트가 대표 메뉴이며 기본 토스트에 절인 사과, 딸기, 블루베리 등의 과일 토핑과 초콜릿 크림 바나나, 딸콩 버터 바나나 등의 토핑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샐러드와 샌드위치도 만나볼 수 있으며 커피와 티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A. 종로구 필운동 49 T. 02 737 2466 * 11:00 - 21:00 / 일요일 휴무



호자베이커리

맘모스빵, 만주, 사라다빵 등 요즘엔 찾을 수 없는 빵들이 있으며, 빵을 여러 개 사면 서비스로 챙겨주는 빵들이 따뜻하고 정겹다. 또한 다양한 빵들을 시식해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느낄 수 없는 푸근한 인심이 느껴지는 동네 빵집이다.

A. 종로구 통인동 43-1 T. 02 736 7629 * 07:30 - 24:00



재래시장의 정겨움



기름떡볶이

서촌을 검색만 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통인시장의 명물, 기름 떡볶이. 이름만 들어도 의아하고 맛을 보면 더 의아해진다. 그동안 흔히 먹었던 떡볶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고 가는 떡을 양념에 버무렸다가 크고 납작한 술에 기름과 함께 볶아낸 이 맛은 먹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며 은근 중독되는 맛이다.

A. 통인시장 내 T. 02 725 4870 * 08:00 - 21:00



손맛 김밥

저렴하고 소박한 시장표 김밥집으로 2대째 이어지는 손맛을 자랑하는 곳.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맛집이다. 메뉴는 손맛김밥 단 하나지만 맛을 보면 그 어떤 김밥보다도 풍성한 재료로 채워진 속과 더불어 고소한 맛과 저렴한 가격에 저절로 자주 찾게 된다.

A. 통인시장 내 T. 02 722 8389 * 07:00 - 18:00



쁘띠통

통의동의 유러피안 레스토랑 가스트로 통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로, 모든 빵들이 프랑스 밀을 사용하고 화학 첨가제를 넣지 않아 소화가 잘 된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칠고 투박해 보이지만 건강한 빵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하나하나 시식해볼 수 있는 재미도 있다.

A. 종로구 창성동 136 T. 02 733 4162 * 10:30 - 21:00



오쁘띠베르

이상 가옥 맞은 편에 위치한 파란 문의 디저트 가게.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1에서 준우승을 한 박준우 셰프의 타르트 카페로 유명한 오쁘띠베르는 다채롭고 새콤달콤한 맛의 타르트와 디저트들을 맛볼 수 있으며 이와 어울리는 커피, 차, 벨기에 맥주, 프랑스 와인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A. 종로구 체부동 19 T. 070 8231 2199 * 12:00 - 23:00 / 일요일 휴무



곽가네 음식

오랜 기간 연구한 사찰 음식과 제철 재료를 이용하여 건강한 맛을 선보이는 음식점이다. 특히, 견과류탕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모든 음식에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신선한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낸 반찬들은 뷔페식으로 이용한다.

A. 통인시장 내 T. 02 735 3268 * 08:30 - 21:30 / 일요일 휴무



도시락 카페

시장 내 상인들이 판매하는 정성이 가득 담긴 여러가지 반찬으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도시락카페. 1개당 500원인 엽전을 구입하고 엽전과 함께 주는 빈 도시락통을 들고 시장 안을 다니며 도시락 카페 가맹점인 반찬가게, 분식점 등에서 엽전을 내고 반찬을 산 후 다시 도시락 카페로 돌아와 식사하면 된다.

A. 종로구 통인동 10-3 T. 02 722 0911 * 11:00 - 17:00 / 매주 월, 셋째주 일 휴무

서촌 마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와 책을 통해 만나보세요.

서촌 공작소 [www.hyojadong.com]
서촌 라이프 [www.seochonlife.net]
서촌 방향 [설재우 지음 | 이덴슬리벨]
낭만 서촌 [문화정 지음 | 문화다방]

옥인동 서울교회 종탑에서 바라 본 서울 풍경



Only at Market m*

* 오리지널 브랜드와 더불어 독점 또는 공식 수입하여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마켓엠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Original Brand



MARKET&BISTRO FURNITURE

마켓엠의 원목가구 및 소품 브랜드입니다. 원목가구는 오랜시간 함께 할수록 자연스러운 멋이 더해지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그 사람의 시간, 공간과 함께 어우러지며 존재합니다.



Wednesday 71

마켓엠의 핸드메이드 소품 브랜드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자연과 함께 보내며 여유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물들과 함께 생활 공간 속에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안합니다.



Analog life

마켓엠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의류 브랜드입니다. 100% 오가닉 코튼을 이용하여 호주에서 생산한 아기옷부터 아동, 성인남녀 의류까지 심플하고 편안한 느낌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IRMA RECORDS

보사노바와 재즈, 어쿠스틱 등 방대한 카테고리의 음악을 선보이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음반 레이블



FUTAGAMI

시간이 흐를수록 멋스러운 황동을 주소재로 조명, 후크를 비롯하여 문진, 문구 트레이 등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일본의 금속 공예 브랜드



hum

HIGHTIDE사와 일본의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집단 graf가 함께 선보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한 아이템을 만드는 문구 브랜드

Imported Brand



PACIFIC FURNITURE SERVICE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인테리어 시공 및 가구와 생활 소품을 디자인하며, 해외 오리지널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는 라이프 스타일 셀렉트샵



WIRED CAFE Music Recommendation

일본의 대표적인 카페 브랜드 Cafe company에서 직접 기획하여 재능있는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컴필레이션한 다양한 컨셉의 편집 음반



CLAY SHOP The original design ceramics

사기제품 생산지로 유명한 태국 람팡에서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선보이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제품 브랜드



JICON 磁今

일본 최대의 도자기 산지 아리타의 Touetsugama사와 디자이너 오지 마사노리가 함께 시작한 일상 속에 조화로운 생활 도자기 브랜드



nasta

일본의 크리에이티브 그룹 MTDO inc가 디자인하며, 보다 즐겁고 스타일리쉬한 가사생활을 위한 세탁 관련 브랜드



ARTWORKSTUDIO INTERIOR PRODUCTS

조명과 더불어 시계, 스위치플레이트 등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을 선보이는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회사



高橋工藝

천연림을 이루고 있는 홋카이도의 목재를 사용하여 나무가 가진 본래의 색상과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친환경적인 테이블 웨어 브랜드



RE-STANDARD PALM GRAPHICS DESIGN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인 문구 회사인 HIGHTIDE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로 친환경 소재와 가공방식을 사용하여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문구 브랜드



SIWA 紙和 Design by Naoto Fukasawa

제지회사 ONAO와 산업 디자이너, 후카사와 나오토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오로' 소재를 사용한 가방, 지갑 등을 선보이는 생활용품 브랜드

New Brand



OCTAEVO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선명한 컬러감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디자인 문구 브랜드



LYON

철재를 소재로 한 고품질의 보관함, 산업용 저장 및 작업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1901년에 설립된 미국의 제품 제조 회사

Other business activities



Jieldé

명료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터스티리얼 디자인의 조명 브랜드
www.jielde-korea.com



가을 향기 가득한 노래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동안 더운 날씨에 지쳐 모르고 있던 감춰진 감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낙엽이 떨어지는 거리를 혼자 산책하며 들으면 더 좋을 만한
감미로운 목소리와 선율이 담긴 노래들을 소개한다.

Track. 01



Summer's Over
Rialto

지쳐만 가던 더위가 끝나고 가을에 접어들 무렵
이런 자연스럽게 늘 생각나는 영국 밴드 Rialto
의 1집 곡. 여름철이 끝나버린 영국의 한 바닷
가 마을에 대해 쓸쓸하게 노래하며, 사람이 붐
비던 여름의 바다가 끝나듯 서늘해지는 추억과
이별을 떠올리게 한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로
맨틱하게도 느껴지는 목소리와 선율이 마음에
와닿는다.

Track. 03



근황
가을방학

하루가 저무는 노을처럼 일년의 해가 저무는 가
을 풍경과도 닮은 가을방학의 곡. 소중한 사람
이 떠난 후의 마음의 풍경을 표현했다는 이 곡
에서 다들 잘 지내는지, 다들 행복했는가를 물을
때 문득 지금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와 멀어져가며 살
고 있지만 근황만은 잘 지내고 별일 없기를. 계
피의 목소리가 담담하면서도 진하게 느껴졌다.

Track. 02



눈물바람
9와 숫자들

복고풍의 포크뮤직에 신스 등 다양한 장르를 결
합하며 등장해 주목을 받았던 9와 숫자들의 두
번째 앨범 '유예'의 수록곡 '눈물바람'. 조용히 속
삭이듯 시작하다가 점점 고조되는 곡의 분위기
와 보컬의 촉촉한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다.
가을 바람이 지난 계절보다 더 차갑고 시리게 느
껴질 때, 올해가 가기 전 9와 숫자들의 무대에서
이 곡을 꼭 듣고 싶은 마음이다.

Track. 04



Baby Blue
King krule

2013년에 발표한 영국 출신 킹크룰의 데뷔앨범
으로 94년생의 어린 나이임에도 일찍부터 자신
의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빨간머리의 주근깨에
뺨뺨미른 소년의 모습을 하고선 의외의 굽직한
저음의 목소리가 그 매력에 빠지게 한다. 나른
하기도 하고 서늘한 멜로디는 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목소리는 시와 같이 들리기도 한다.

따뜻하게 즐기는 티타임

더위와 치열하게 싸운 여름, 정신 바짝 차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풀었다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힐링할 때이다.
그렇다고 티 포트를 구입하고 찾았을 우려낼 할 필요는 없다.
제대로 된 티백 하나로 충분한 티타임의 여유를 즐겨보자.




TWININGS 잉글리쉬 블랙팩트스트

아침에 마시기 좋은 차로 우유와 함께 하여
밀크티로 마시기 좋다. 부드럽게 입안
가득 퍼지는 향과 텁텁함 없이 깔끔한 맛
을 느낄 수 있다.



KUSMI TEA 디톡스

몸의 해독을 위한 마테와 녹차, 레몬글라
스의 맛이 조화되어 은은하고 향긋하며,
티백이 모슬린 천으로 되어 차가 잘 우려
나고 차향을 깊게 느낄 수 있다.



The Coffee bean 레몬 캐모마일

100% 순수한 이집트 산 캐모마일과 향
기로운 레몬 그래스가 혼합되어 가벼움
과 상쾌함이 균형 잡힌 맛을 내어 산뜻
한 기분을 내기 좋다.



OSULLOC 제주 아일랜드 드림 그린티

제주에서 자란 유기농 녹차에 동백꽃, 유
채꽃, 감귤 등의 특산물과 향긋한 살구향
을 블렌딩하여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어
기분 전환에 좋다.



2014. 8.29.FRI - 9.6.SAT

기간 | 2014년 8월 29일(금) ~ 9월 6일(토)
 주최 |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장소 | 서울아트시네마 서울극장 4층
 문의 | 02-741-0782 www.cinemateque.seoul.kr

Good Info - Movie

가을 느낌, 감성 충전!

더운 여름의 활기찬 분위기와 달리 짙게 물든 단풍과 바스락 거리는 낙엽소리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요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엄선된 추천영화들을 보면서 감성을 충전해보자.

 Seoul Art Cinema's Recomm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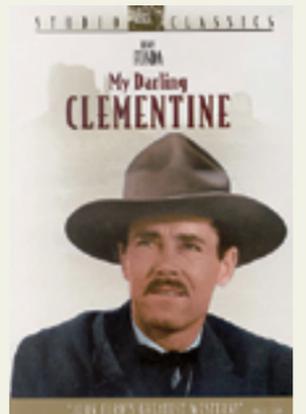
추천·글 서울아트시네마 기획홍보팀장 석영화

My Darling Clementine [황야의 결투]

존 포드, 1946

와이엇트 어프와 그의 동생인 모간, 버질, 제임스는 소떼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가던 중 아리조나 톰스톤 외곽에서 잠시 멈춘다. 그곳에서 클랜튼 일가를 만나는데 그들은 어프 일행에게 소떼를 내어놓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 존 포드의 많은 작품들은 서부 개척지에 문명이 도래하는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데 이 작품 역시 공동체의 생성, 법치, 그리고 거칠고 야성적인 서부에서 여성이 끼친 문명화의 영향들을 다루고 있다.

고전 미국영화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감독 중의 한 명인 존 포드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단연 서부극이다. <황야의 결투>는 1991년 미국의회도서관에 의해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영화로 꼽혀 미국국립영화등록재부에서 보존되고 있다. 2차 대전 종전 후에 만든 <황야의 결투>는 당시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개척기 영웅들을 찬미하고,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존 포드는 서부극 장르를 통해 미국의 오래된 신화와 역사의 한 부분을 풍부하게 그려냈다.



 Market-m*'s Recommend!

추천·글 마켓엠 디자인팀 이현아

Our Sunhi [우리선희]

홍상수, 2013



가을 단풍이 물든 창경궁 정원에 세 남자가 모였다. 나흘 전 갑작스러운 선희의 등장에 세 남자의 일상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시선대로 선희를 설명하려 들고, 비슷한 대사와 장소들이 돌고 돌며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어낸다. 옮겨가는 충고와 판단, 허세와 같은 이야기들은 언제 나처럼 같은 술집과 뜬금없는 노래가 뒤섞여 관계를 끊어내지만 결국 창경궁이라는 공간에 모여 선희가 없는 '우리가 되어 남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인지, 누군가를 아는 것인지 아니면 인다고 믿는 것인지 홍상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써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영화다.

Flipped [플립]

로브 라이너, 2010



느리고 서툴렀지만 천천히 익어가는 순수한 첫사랑의 기억이 더 아련하게 남는다는 것을 모두 공감할 것이다. 7살의 줄리와 브라이스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12살까지 두 사람의 감정 변화를 나레이션과 함께 보여주는 플립은 동일한 사건을 줄리의 시선과 브라이스의 시선을 통해 대비시킨다. 제목처럼 뒤집어지는(flipped) 상황 속의 풋풋한 두 소년, 소녀의 생각들이 웃음을 짓게 만들고, 잊고 살아왔던 따뜻한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상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되고 순수한 방식을 아름답게 보여주어 여운을 길게 남겨주었다.



OCTAEVO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아트 디렉터 겸 그래픽 디자이너인 Marcel Baer가 만드는 디자인 문구 브랜드입니다.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와 햇살의 이미지를 담아 선명한 컬러감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 OCTAEVO의 제품을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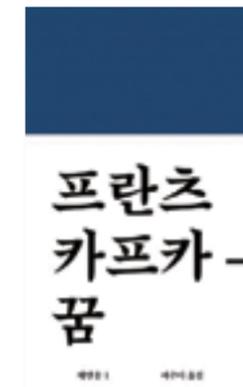


책 읽기 좋은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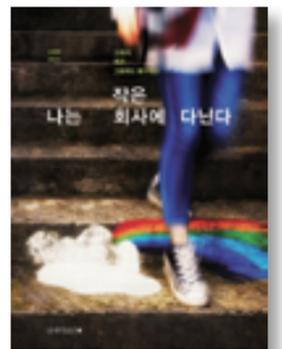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울긋불긋 물든 단풍, 뻥뻥한 말이지만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책 읽기 좋은 가을, 산책할 때 옆구리에 살짝 끼울 만한 책을 추천한다.
자기계발서를 비롯하여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림책까지, 독서는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을 지 고민이라면 이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



1. 창조성을 지켜라
디자이너, 예술가 등 크리에이터를 위한 자기계발서. 디자인적 일상에 대한 지식을 이용한 값진 조언을 통해 삶의 한 형태로서의 창의성을 다시 바라보도록 인도해준다.
프랑크 베르츠바흐 지음 | 박정례 옮김 | 안그라픽스



2. 꿈
카프카가 꿈에 대해 쓴 일기, 편지, 메모, 단편 등을 엮은 것으로 그가 직접 꾸민 꿈의 묘사와 그가 꿈 꾸길 원했던 현상들을 기록한 이야기이다.
프란츠 카프카 지음 | 배수아 옮김 | WORKROOM



3.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
그래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회사를 선택한 13명의 당당한 청년들 이야기로 그들 스스로 일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담아낸 책이다.
김정래, 전민진 지음 | 남해의봄날



4. 세상을 여행하는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세상에 서툰 사람들을 위해 직관과 통찰로 적어 내려간 짧은 메시지를 책으로 엮어 '오늘도 무사히' 보다는 '오늘도 나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비법을 담았다.
김현철 지음 | 마호



5. 요리그림책
32명의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을 '요리와 음식'이라는 주제로 하여 각자의 상상력과 레시피로 아가자기하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강영지 지음 | 유아마인드

THANKS BOOKS

동네서점, 팽스북스 스토어

동대알과 어울리는 책들로 구성된 큐레이션 서점입니다.
www.thanksbooks.com

Anthracite

COFFEE ROASTERS

마포구 당인리 화력 발전소 근처에 위치해 조금은 찾기 어려울 수 있는 위치지만
내추럴하고 시크한 느낌과 수준급 커피의 맛으로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핫 플레이스.
걸고 싶은 가을 오후, 진한 커피를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곳으로 발걸음을 해보자.



Add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7-6
Tel 02 322 0009
Open 11:00 - 24:00
Homepage www.anthracitecoffee.com



벽은 허물다 말았고 테이블은 컨베이어 벨트인 심상치 않은 이곳은
낮은 신발 공장 건물의 옛 모습의 외관을 살려 재탄생한 Anthracite Coffee Roasters [엔트러사이트, 무연탄]이다.
외관과 공간에서 오는 멋으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우선 맛 좋은 커피를 즐기기 위해 발걸음을 하게 된다.
바리스타 개인마다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 커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2층에 넓은 공간에서는 커피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어 좋은 작품을 보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눈과 입이 즐거운 곳이다.



엔트러사이트의 인기메뉴인
공기와 폼과 레몬치즈타르트





Home Barista Course Basic

집과 작업실, 어디서든 커피가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만들어보는 커피를 제안하는 엔트러사이트의 홈 바리스타 코스

1주, 개요

커피의 역사 → 작물적 특성 → 품종, 재배지 → Green Bean Process와 Coffee Roasting에 따른 원두 샘플 보기 → 산지에 따른 커피 맛보기 / Q & A

2주, 브루잉 커피

커피 추출의 의미 → 에스프레소와 브루잉 추출의 차이 → Hand Drip, Clever, French Press, Aero Press 형태와 시연 → 추출 기구에 따른 커피 맛보기 / Q & A

3주, 컵핑

커피의 관능적 평가; Cupping 시작하기 / Q & A

4주, 이제 Home Barista!

선호하는 추출 기구를 선택 → 직접 커피를 만들어보기, 엔트러사이트의 가이드와 함께 /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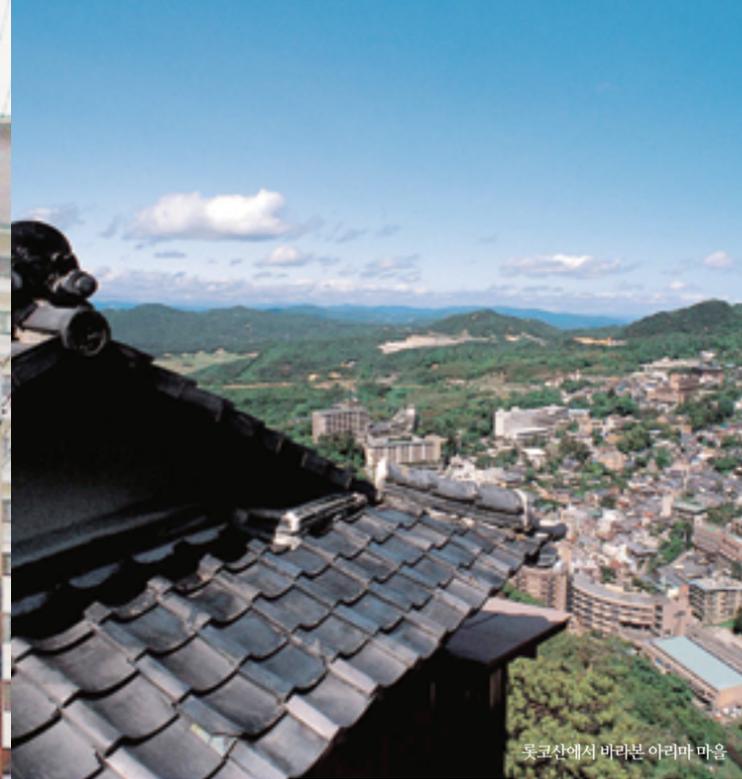


LYON은 1901년에 설립된 미국의 제품 제조회사입니다.
 철재를 소재로 한 고품질의 보관함, 산업용 저장 및 작업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철재 시물함을 비롯하여 선반과 캐비닛들은 학교, 기관, 선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LYON의 제품들을 마켓एम에서 만나보세요!

LYON® WORKSPACE PRODUCTS
MADE IN U.S.A.

선선한 가을,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고베 아리마 온천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온천!
효고현 고베시에 위치한 아리마 온천은 고즈넉함이 가득한 시골 마을입니다.
일본 최초의 탄산수인 아리마 사이다, 탄산맛 센베이,
아리마 술로 만든 사케 만주 등이 유명합니다.
선선한 이 가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따뜻한 아리마 온천으로 오세요!



뭣코산에서 바라본 아리마 마을



진노유(온탕)



아리마 유흥온천 전경



일본 전통 료칸

아리마 온천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온천지 중 하나로, 일본의 3대명천(三大名泉)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온천입니다.
관서지방에 위치한 아리마 온천은 특히 고토, 오사카, 고베, 히메지를 방문하는 분들의 여행지로 최적의 명소입니다.
화산이 없는 지역이지만, 신기하게도 지하 200m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아리마 온천은 지구 내부 상부 맨틀층의 광물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온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염분 농도를 자랑하는 온천수는 추운 겨울에도 몸의 따뜻함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아리마만의 특별한 온천수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면, 겨울 일미인 마쓰바가니(게), 고베 비프를 넣은 나베(찌개) 등 다양한 별미가 가득합니다.

일본 효고현 고베시 기타구 아리마초 790번지

www.arima-onsen.com

(사)아리마온천관광협회

有馬温泉観光協会

有馬温泉

by frankie magazine

SPACES

New arrival!

호주의 frankie press에서 발행하는 프로젝트 매거진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집, 스튜디오, 카페 등 감각적인 공간들에 대한 소개로 채워져 있습니다.

※ SPACES를 마켓팅에서 만나보세요!

WHERE CREATIVE PEOPLE LIVE, WORK AND PLAY



FOR THE PLANET

MEMBER

1% for the planet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웃도어 브랜드 기업인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추나드와 블루 리본 플라이즈의 대표 크레그 매튜스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회원 기업들은 연간 매출의 1%를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2,20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38개국에서 2,500개 이상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 for the planet은 자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기업들의 동맹입니다. 이에 참가하는 기업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지구 환경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지위를 확립해 나갑니다.

www.onepercentfortheplanet.org

(주)티엠씨인내셔널은 2011년부터 1% for the planet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Jieldé

Hand made in France since 1950

www.jielde-korea.com